에세이특집 나의 고학시절

淨化特輯

신문끼고 달린 새벽길 5만리

○… 통금해제 사이렌이 울리는 새벽…○
○…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새끼줄로…○
○…동여맨 신문을 옆구리에 끼고 새벽…○
○…길 10리를 달렸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만 9…○
○…년 7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

「20년전 J일보 배달소년, 재벌기업 이사됐다」는 제목으로 내 얘기가 신문에 크게 소개된 적이 있다. 몇해 전의 일이었는데 당시 신문을 또 꺼내 보는 이유는 「나의 고학시절」에 관한 원고청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때는 다들 못살았다. 말하자면 나만 고학한 게 아니란 얘기다. 원고청탁을 받고 나서 무얼 써야할지 난감한 [illegible]

아버님은 무학이셨다. 6·25동란 후 아버님이 내리신 결단으로부터 나의 고학이야기는 시작된다. 아버님은 당신의 무학이 한이 되셨던지 위의 누이 넷을 출가시키고 난 후 어떻게든 아들 둘은 공부를 시켜야 한다며 그야말로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셨다. 그래서 나는 1954년 휘문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아버님에게 서울이란 두 아들을 공부시킬 만큼 돈이 벌리는 곳이 아니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무허가 판자집에서 우리 네식구는 끼니를 걱정할 만큼 어려운 생활을 꾸려야 했다. 나는 그때부터 형과 함께 생활을 책임져야 했고 학비를 벌어야 했다. 중학생 가장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중학생에게 적당한 일거리가 흔치 않 [illegible]

[illegible]

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게 없었다. 생각끝에 나는 신문배달을 하기로 작정했다. 그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만 9년 7개월동안 그야말로 끈질긴 신문배달원생활이 시작되었다. [illegible]

[illegible]

은 「교훈」이다. 나는 「지성이면 감천」이란 옛이야기를 고학경험으로 확 [illegible]

〈정화지 2000년에서 발췌〉 〈황우태 이사〉

連載 栽培教室

87新規會員을 爲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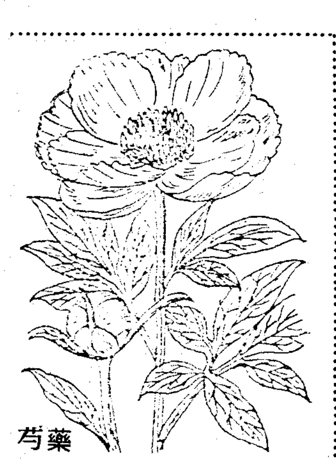
작약 = (芍藥)

○生藥名=芍藥 Paeoniae Radix

○效用=鎭痙、鎭痛、緩和、收斂作用이 있다. 筋肉의 경련、頭痛、復痛、赤痢、止汗 등에 유효함.

1、性狀

[illegible]



芍藥

2、栽培法

①栽培適地

[illegible]

②繁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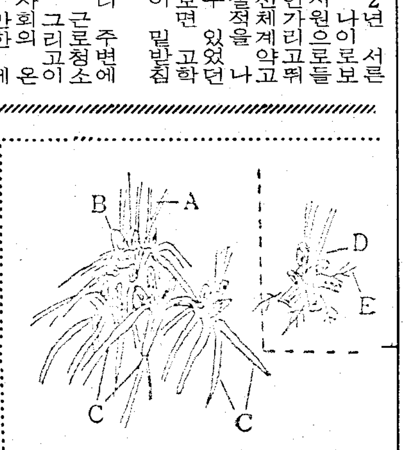
[illegible]

③定植

[illegible]

④肥培管理

[illegible]



芍藥의 分株法

A : 잎줄기 B : 충실한 싹눈

D : 분주한 모종 E : 잔뿌리

3、收穫·調製

[illegible]

만삼 = (蔓蔘)

○生藥名=蔓蔘

[illegible]

〈3면으로 계속〉